

좌완 기군 KIA 불펜에 '심안썰' 온다

〈'썰'이라는 의미, 팬들이 붙여준 심동섭 별명〉



심동섭, 팔꿈치 재활 끝내고 내달초 복귀 체비 2군 등판서 3개 아웃카운트 모두 삼진 처리 포크볼 앞세운 '배장투'... 호랑이 마운드 단비

"안썰인데 지금은 썰이예요. 썰" KIA 좌완 심동섭이 '썰'이라며 웃었다. 팔꿈치 재활을 끝내고 복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심동섭이 평가한 현재는 절반의 성공. 심동섭이 좋아하는 애칭은 '심안썰'이다. '겹없다'는 표현의 방언인 '썰다'. 겹없는 피침을 하는 심동섭에게 '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안썰'로 통했던 심동섭이지만 차근차근 마운드에 적응하고 있는 현재는 완벽하지 않은 '썰'이라는 설명이다.

군복무였지만 입대가 미뤄지면서 마운드 복귀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3군에서 두 차례 실전 피칭을 하며 시동을 건 심동섭은 25일 투산을 상대로 퓨처스리그 세 번째 등판을 소화했다. 볼넷을 하나 허용했지만 3개의 아웃카운트를 모두 삼진으로 장식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퓨처스리그 3경기 성적은 2.2이닝 3볼넷 4탈삼진. 피안타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경기 감각을 잡아가는 중이라 재구가 완벽하지 않다. 매 등판에서 볼넷을 내주고 있고 직구 스피드도 140km 초반이다. '감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심동섭은 팔꿈치와의 싸움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회복단계에서 미세한 통증이 찾아온다. 이에 대한 부담감과 통증을 넘어서는 중요한 과정을 겪고 있다. 심동섭은 "공을 던지게 되니 1군 생각이 간절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8월 초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100%의 전력은 아니지만 자신감은 있다.

성공적으로 재활 과정을 끝냈고 점점 그라운드가 눈에 익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동섭은 "그동안은 공을 던져보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생각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무엇보다 연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구도 다 던지고 있고 몸상태도 좋다. 밸런스와 감을 잡아가는 단계인 만큼 곧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심동섭이 좌완 기군에 시달리고 있는 KIA 마운드에 반가운 비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청룡기 고교야구 오늘 개막

청룡기 패권을 향한 고교야구 선수들의 열전이 시작된다. 주말리그 왕중왕전 겸 제 68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 26일 목동구장에서 개막한다. 오전 10시 대구고와 인천고의 대결로 막이 오르는 이번 대회에는 주말리그 후반기 예선을 통과한 31개팀이 참가해 대결을 벌인다. 전라권에서는 6전 전승을 거둔 순천효천고와 함께 광주일고(5승1패), 군산상고(4승2패), 진흥고(3승3패)가 대표자격을 얻었다. 효천고는 28일 오전 10시 경남고와 첫

전라권 대표, 효천고·광주일고·군산상고·진흥고

승부에 나서며, 광주일고는 27일 오전 10시 장충고를 상대한다. 두 경기는 SBS ESPN을 통해 생중계 된다. 진흥고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고와 16강 티켓을 다투고, 군산상고는 마산고와 29일 오후 12시30분 첫 경기를 갖는다. 대회는 목동구장과 잠실구장에서 열리며 최후의 승자는 내달 5일 오후 6시에 열리는 결승전에서 가려진다. 한편 주말리그 후반기 전라권 최우수선수는 KIA 1차 지명 선수인 효천고 투수 차

명진에게 돌아갔다. ◇주말리그 광역리그 시상내역(전라권) ▲최우수선수상: 차명진(효천고) ▲우수투수상: 박계범(효천고) ▲감독상: 한두술(광주일고) ▲수훈상: 남승운(효천고 2수투) ▲타격상: 목고협(전주고 우익수·0.600) ▲타점상: 김만수(효천고 포수·7) ▲도루상: 박계범(효천고·6) ▲홈런상: 박희주(효천고 좌익수·1) ▲감독상: 서창기(효천고) ▲공로상: 정황기(효천고)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응원할까, 류현진 응원할까

28일 ML 두 코리안 대결 흥미진진

올 시즌 한국인 빅리거의 활약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던 '꿈의 대결'이 성사됐다.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의 첫 맞대결이다. 다저스와 신시내티는 26~29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4연전을 벌인다. 다저스가 26~27일 선발로 각각 잭 그레이인키와 클레이튼 커크를 예고한 가운데 류현진은 28일 등판이 유력시된다. 이날 팬들은 메이저리그에서 정상급의 '참과 방패'로 자리잡은 두 선수의 승부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처음 빅리그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류현진은 19경기에서 8승3패와 평균자책점 3.25를 기록하며 다저스 부동의 3선발로 뿌리를 내렸다. 특히 갖 대위한 신인면서도 경기에서 나설 때마다 5이닝 이상을 책임지고 대량 실점도 하지 않는 꾸준함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연착륙했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 시즌 8승째를 거둔 류현진은 신인왕 자리를 두고 호세 페르난데스(마이애미 말린스), 쉐비 밀러(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 등과 경쟁 중이다. 7년간의 클리블랜드 생활을 정리하고 신시내티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도 팀의 주전 중견수이자 공격 첨병으로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타자로서는 오를라클라라하는 타격 사이클에 따라 평가에도 다소 부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외야수로 자

리잡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올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그는 한창 감각이 절정을 달리던 때 예상 몸값이 1000여만에 달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다는 무대에서도 말리지 않고 임지를 구축해 온 두 선수가 드디어 처음 맞대결을 벌이는 것이다.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선수가 투·타 맞대결을 벌인 것은 이번이 14번째다. 2004년 4월 14일 최희섭(현 KIA)과 김선우(현 투산)의 만남이 첫 번째였고 2010년 7월 30일 추신수와 박찬호(은퇴)가 맞붙은 것이 마지막이었다. 추신수는 서재응(현 KIA), 박찬호와 5차례 만나 5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류현진과 추신수는 약점까지 서로 얽혀 있어 더욱 흥미를 끈다. 류현진은 올 시즌 오른손 타자(피안타율 0.238)보다 왼손 타자(0.294)에게 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추신수는 오른손 투수(상대타율 0.344)에게는 저승사자처럼 무서웠지만 왼손 투수(상대타율 0.179)를 상대할 때면 고양이 앞의 쥐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류현진은 왼손 투수고, 추신수는 왼손 타자다. 두 선수 모두 원정경기보다는 홈경기에서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굳이 외부 요인까지 따진다면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류현진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연필뉴스

물 위에서 펼치는 '스피드 레이싱'

내달 3~4일 완도 명사십리 해변에서 국내최초 '호버 크래프트 대회' 美·英·獨 등 14개국 34명... 국내 대표론 조선대·청암대 선수단 출전

일명 '물 위를 뜨는 비행기'로 불리는 호버 크래프트(Hover craft) 경주대회가 국내 최초로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변에서 열린다. 전남도와 완도군 공동 주최, (사)전라남도 레저스포츠 협회 주관으로 '2013 코리아 오픈 국제 호버크래프트 대회'가 8월 3~4일 이틀간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남의 해양자원인 해안, 갯벌 등의 특성을 활용해 레저스포츠 육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경기가 열리는 명사십리 해변은 '공기 비터민'이라 불리는 산소 용이온 발생량이 전국 최고다. 매년 100만명이 찾는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등 14개국 34명의 선수가 참가등록을 했다. 국내에서는 조선대와 청암대 선수단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경기부문과 체험부문으로 나눠 펼쳐진다. 경기부문은 ▲스피드 레이싱(F50 국제 엘리트급, 국내 아마추어급) ▲엔투런스(통합)로 구분된다. 국제 엘리트급은 16명(8명×2개조)이 참가하며, 국내 아마추어급은 18명(6명×3개조)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국내에는 활동하는 선수가 없어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2급)소지 대학생을 모집해 주행교육을 사전에 실시했다. 대회 첫날인 8월 3일 오전에는 국내 아마추어급 예선(3개조)과 국제 엘리트급 예선(2개조)이 열리고, 오후에는 엘리트급과 아마추어급이 혼합된 친선경기가 마련된다. 이어 4일에는 국내 아마추어급과 국제 엘리트급 결선경기가 치러진다. 국제 엘리트급 경기는 580cc, 65마력 호버 크래프트 8대가 사용되고, 국내 아마추어급 경기는 503cc, 50마력 호버 크래프트 6대가 이용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친다.

크래프트 무선(RC) 조종체험 ▲호버 크래프트 시승체험 ▲호버크래프트 전시 등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이미 레포츠로 자리잡고 있는 호버 크래프트 대회가 국내최초로 남해안 최고의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열린다"며 "장비확보와 민·관 협력사항은 물론 마무리 점검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버 크래프트=선체의 하면(下面)에 압축공기를 수면으로 강하게 내뿜어서 에어쿠션을 만들어 배를 수면에서 약간 부상(浮上)시키는 한편 배 위에 장착된 엔진의 프로펠러에서 뿜어내는 바람의 힘으로 나아가는 수륙양용의 공기 부상선이다. 선체 주위에 고무 등으로 된 스킵트를 수면까지 올려뜨려 뿜어낸 압축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선체를 부상시킨다. 늘지대나 선박 접안이 곤란한 지역의 수송 등에 사용되며 땅 위나 물 위를 프로펠러 추진력으로 떠서 다니기 때문에 일명 '물 위를 뜨는 비행기'로도 불린다.